

다문화청소년은
초-중 전환기
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며,
지난 8년간
무엇이 나아졌을까?





주요 결과 ①

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성적, 자아존중감, 삶의 만족도의 저하

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성적이 떨어지고,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은 청소년들이 흔히 경험하는 현상

- ▶ 초-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들도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
- ▶ 스스로 보고한 학업성적은 중학교로 진학하며 급격하게 낮아졌으며, 이는 다문화청소년 유형에 관계 없이 공통적인 현상임



그림 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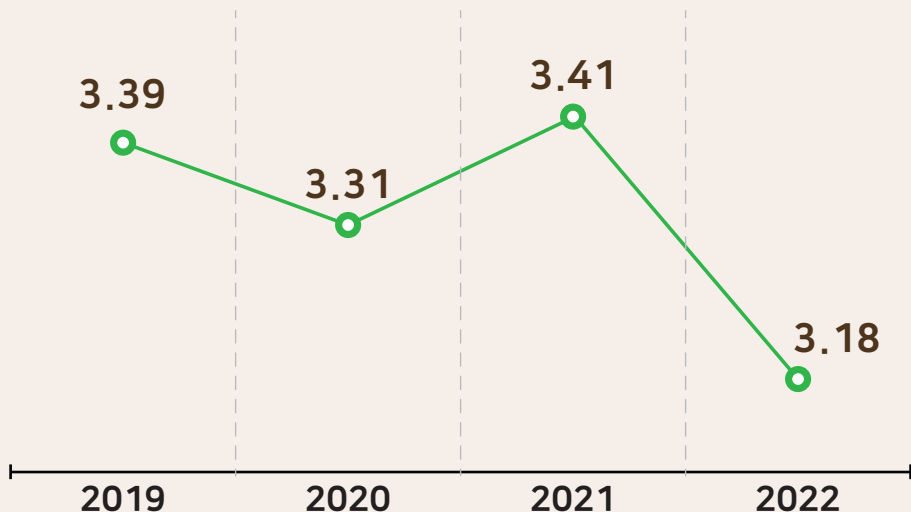
학업성적 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

전체

단위: 점(5점 척도)

- ① 매우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
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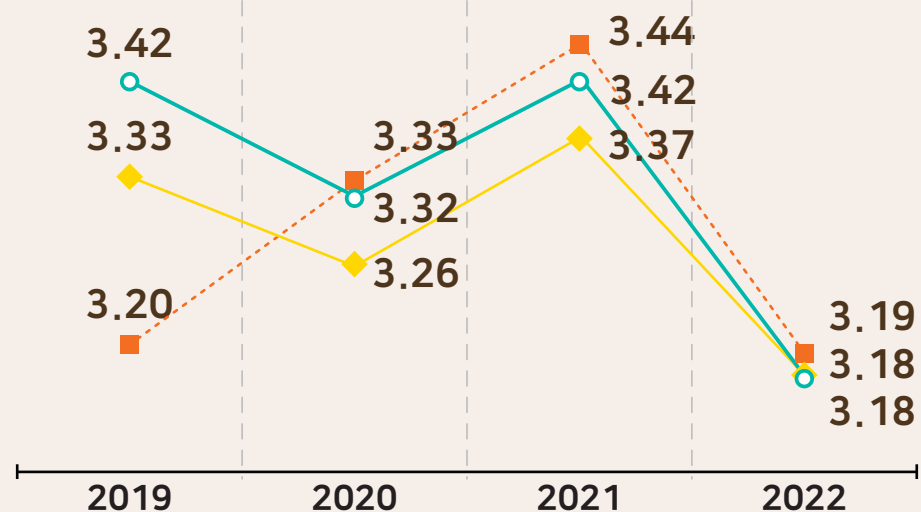
—○— 전체



다문화청소년 유형

단위: 점(5점 척도)

—○— 국제결혼가정 —■— 중도입국가정 —◆— 외국인가정





주요 결과 ①

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성적, 자아존중감, 삶의 만족도의 저하

- ▶ 정서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하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



그림 ②

자아존중감 변화 추이

전체

단위: 점(4점 척도)

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



다문화청소년 유형

단위: 점(4점 척도)

○ 국제결혼가정 ■ 중도입국가정 ◆ 외국인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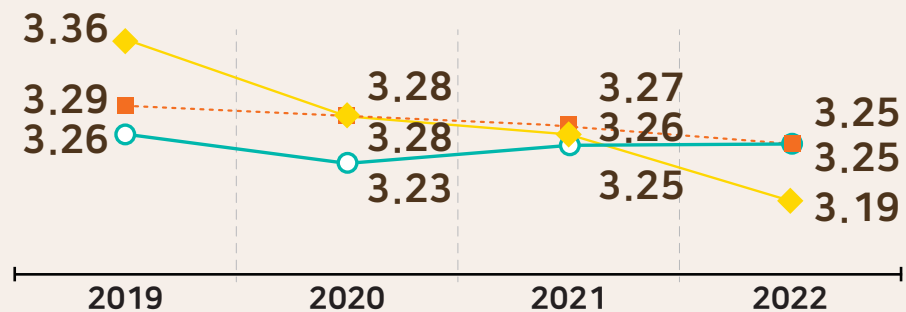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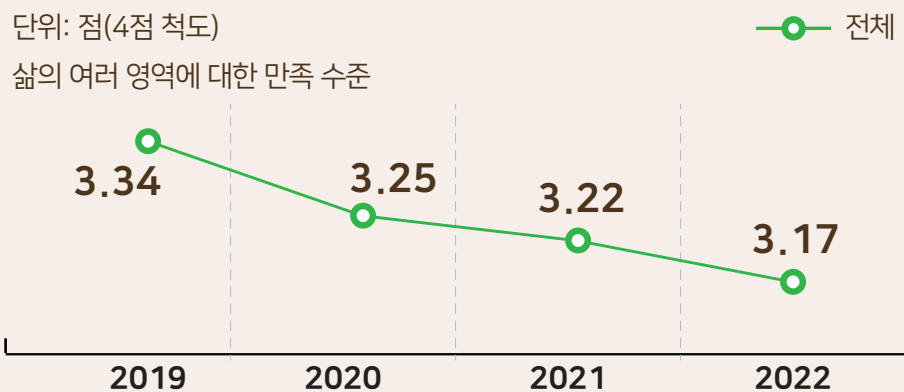
그림 ③

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

전체

단위: 점(4점 척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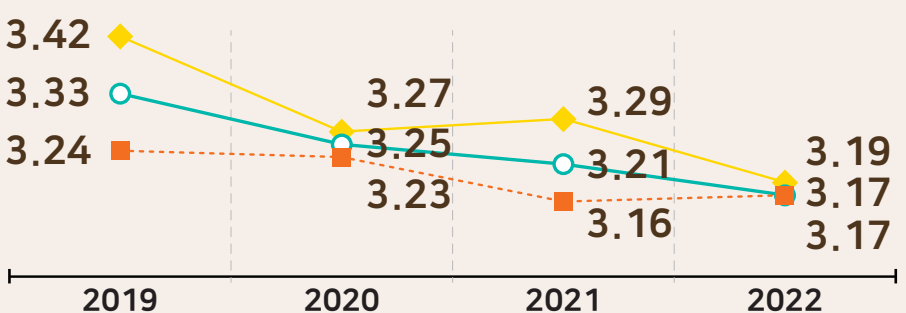
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 수준



다문화청소년 유형

단위: 점(4점 척도)

○ 국제결혼가정 ■ 중도입국가정 ◆ 외국인가정





주요 결과 ①

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성적, 자아존중감, 삶의 만족도의 저하

▶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와의 인터뷰 결과,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나 한국어 부족 등이 동반되며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▶ 중도입국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이 동반되면서 친구와의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음
- ▶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며 재차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경우 초-중 전환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
- ▶ 또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업 난이도도 올라가므로 학습 한국어에 제한점이 있는 경우 어려움이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됨





주요 결과 ②

부모의 지원과 관심의 감소

▶ 부모의 지원과 관심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초등학교 시기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▶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'감독'적인 양육태도는 2019년 가장 높았던 반면, 2022년 가장 낮게 나타났음
- ▶ 다문화청소년 학부모와의 인터뷰에서도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담임교사와 소통 및 학교 방문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든 현상이 확인됨



그림 ④

부모의 양육태도-감독 변화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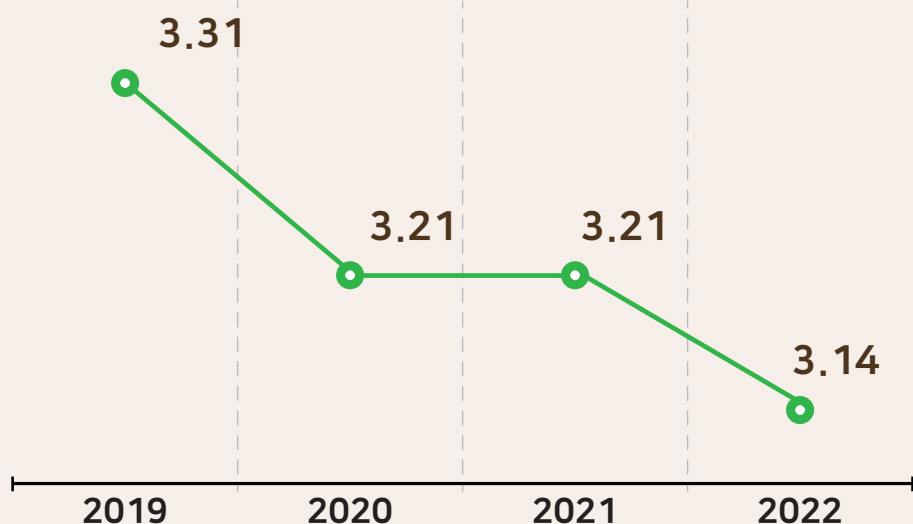


전체

단위: 점(4점 척도)

부모가 자녀의 일상적인 일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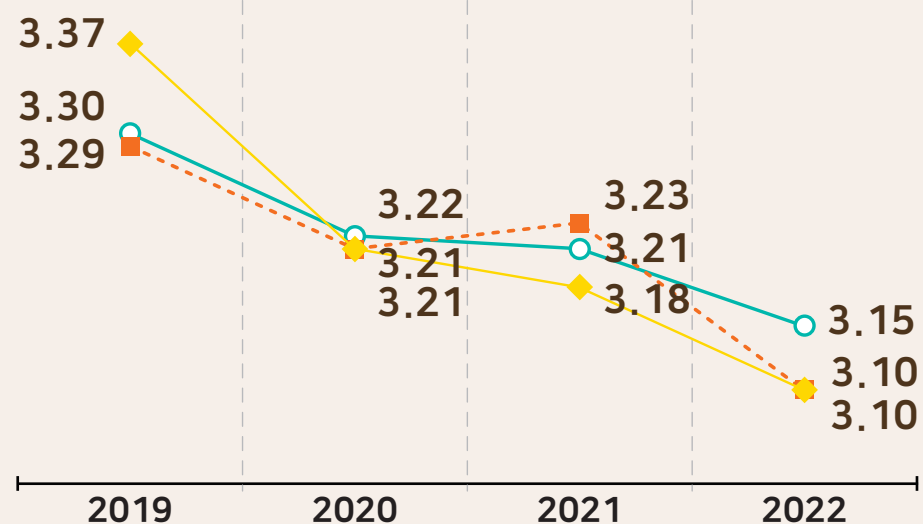
—●— 전체



다문화청소년 유형

단위: 점(4점 척도)

—○— 국제결혼가정 —■— 중도입국가정 —◆— 외국인가정





주요 결과 ②

부모의 지원과 관심의 감소

- ▶ 반면, '방임'의 양육태도는 초등학교 4학년에 가장 낮았지만,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



그림 ⑤

부모의 양육태도-방임 변화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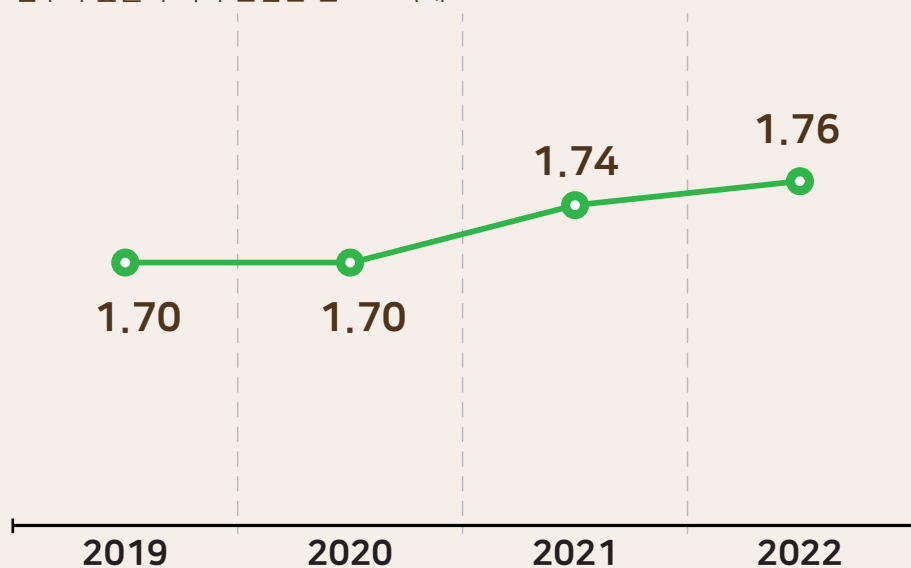


전체

단위: 점(4점 척도)

부모가 자녀의 생각과 상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, 점수가 높을 수록 무관심한 편으로 이해

—○— 전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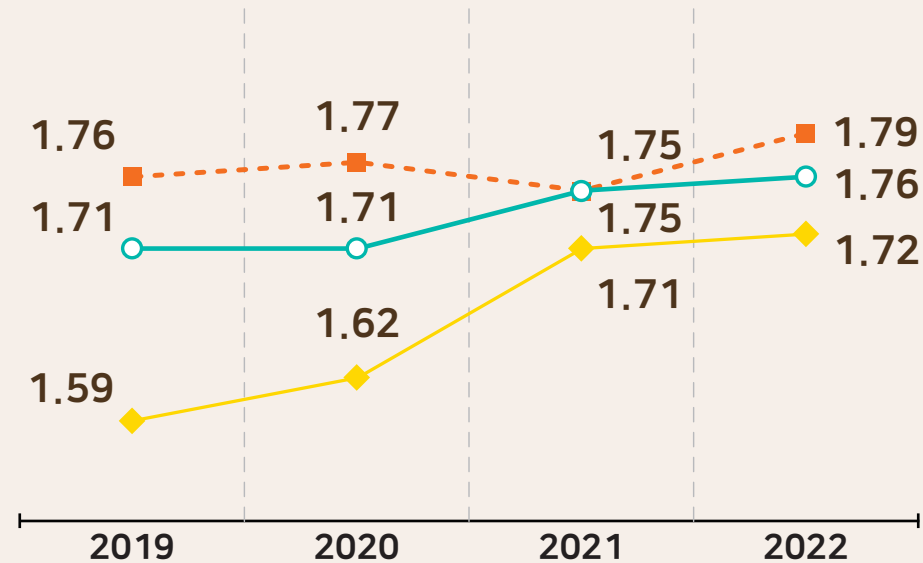
다문화청소년 유형

단위: 점(4점 척도)

—○— 국제결혼가정

—■— 중도입국가정

—◆— 외국인가정





주요 결과 ③

사회적 지지망 개선 및 집단괴롭힘 피해 감소 (2014년 및 2022년 결과 비교)

▶ 8년전 조사결과와 비교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망이 개선되었고, 집단괴롭힘에 노출되는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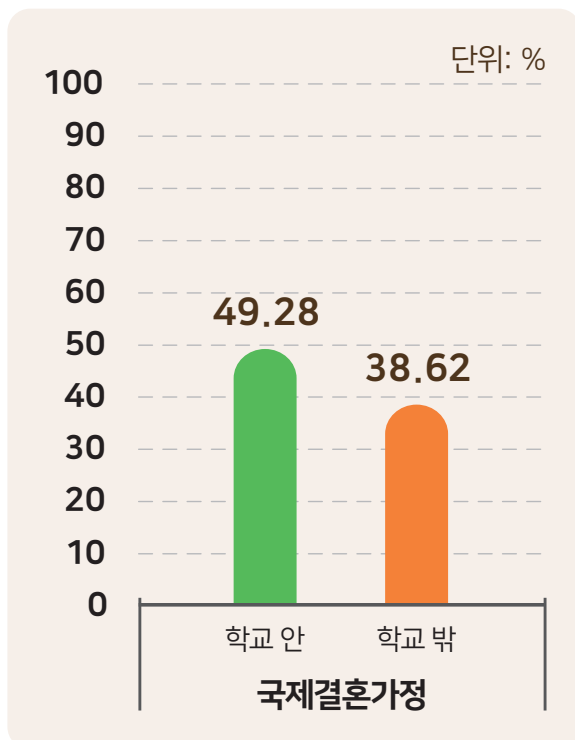
▶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지난 2014년에 비하면 학교 안과 밖에 도와줄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9.28%와 38.62%에서 89.11%와 51.59%로 크게 늘어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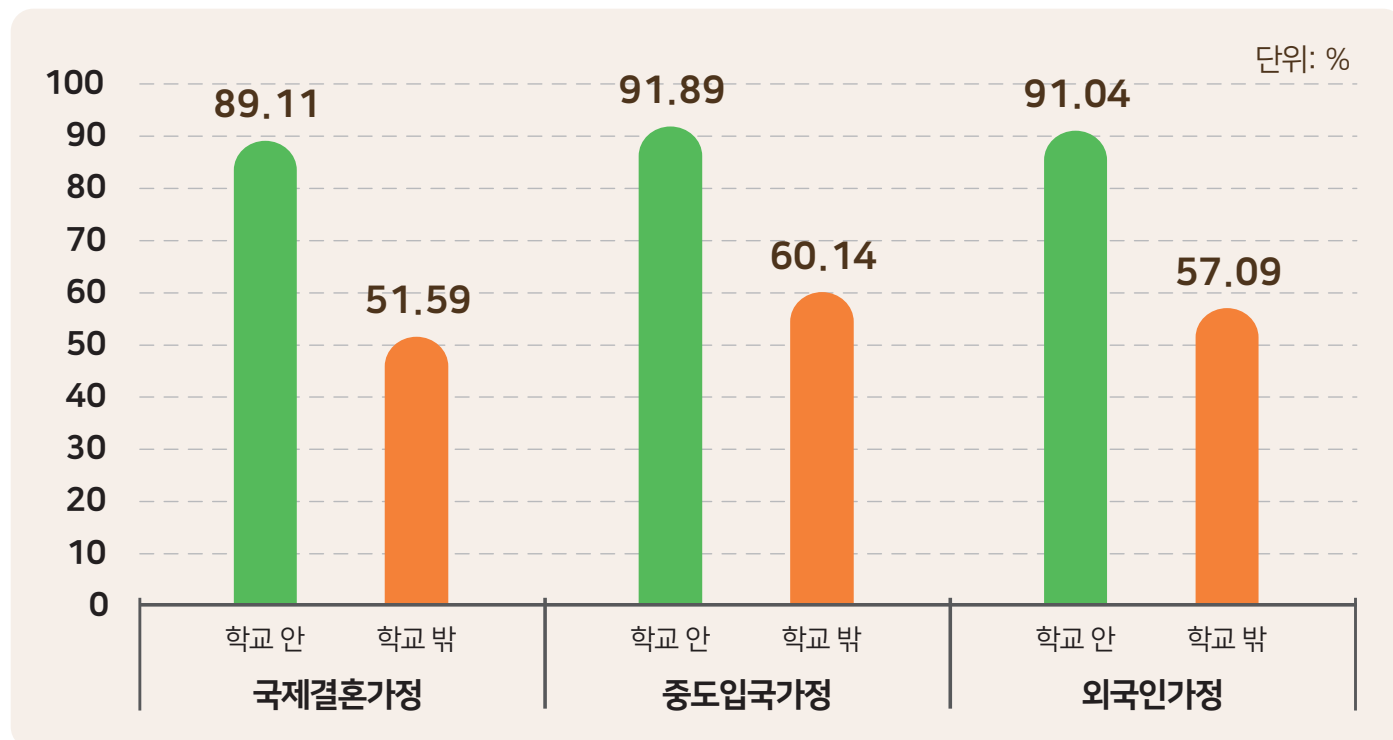
그림 ⑥

'학교 안과 밖에서 도와줄 어른이 있다'고 응답한 비율의 변화

1기 패널(2014)



2기 패널(202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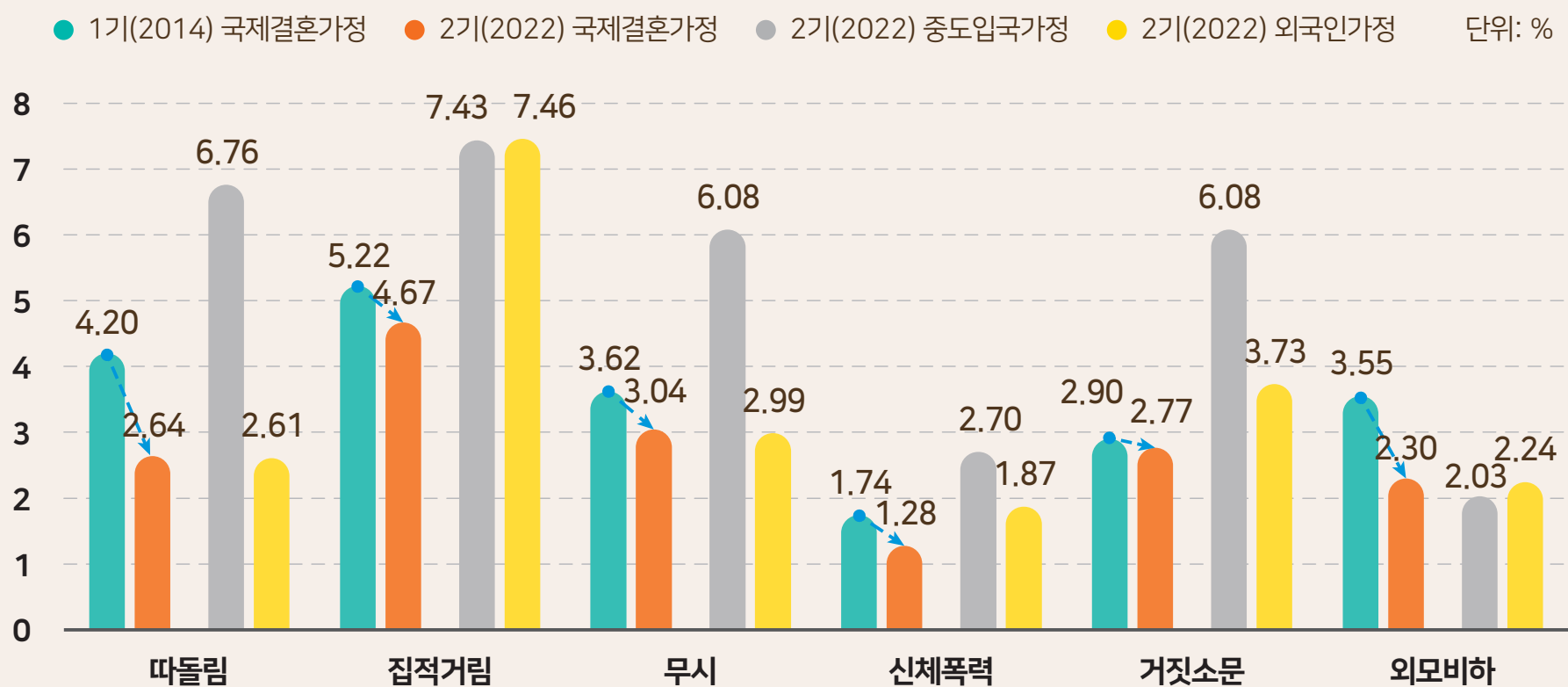
사회적 지지망 개선 및 집단괴롭힘 피해 감소 (2014년 및 2022년 결과 비교)

- ▶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한 집단괴롭힘은 8년 전과 비교해 모든 유형에서 감소함
- ▶ 특히 따돌림, 외모비하 등을 당했다는 응답자 비율의 감소가 두드러짐



그림 ⑦

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변화





요약 및 정리

청소년들은 초-중 전환기 누구나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지만, 일부 다문화청소년에게 이 시기는 **기존에 축적되어 온 어려움이 증폭하는 계기로** 작동하기도 합니다.

이들이 학교 및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



다문화청소년은
초-중 전환기
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며,
지난 8년간
무엇이 나아졌을까?



신동훈 연구위원

이정민 부연구위원

이용해 전문연구원